

운영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18년 11월 22일(목) 11:00-13:00
- 장 소 : 서울강서등촌지역자활센터 3층 강당
- 참 석 인 원
장재승 관장 (위원장), 박상신(운영위원), 이영민 교수(운영위원),
이명호의원(운영위원), 김정민 실장(간사) 총5명
- 회 의 안 건
 - 서울강서등촌지역자활센터 현황 보고
 - 2018년 3분기 자활근로 사업 주요 진행사항 보고
- 기 타 안 건
 - 자활사업 및 센터 홍보 방안

□ 개 회 : 각 위원님들 소개하며 각자의 안부를 묻고 감사 인사말을 약 5분간 마침

□ 내 용

- * 장재승 위원장으로부터 위원들의 회의 안건 순서결정에 대하여 가부를 물어 원안대로 진행함을 동의를 얻어 사업관련 전반적인 회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김정민 간사가 브리핑하며 설명을 함(약20분)
- * 사업 브리핑 후 장재승 위원장의 사업에 대한 부연설명도 진행함.

* 이하 존칭 생략

- 위원장 : 위원님들 센터 및 사업 관련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이영민 : 판촉물 사이트에서 주로 많이나가는 물품이 어떤 것이 있나요?

- 위원장 : 해오름과 연계하여 인터넷 상에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판촉물 업체에서 판매하는 판촉물은 전부 입력이 되어 판매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포토샵 작업을 할 수 있는 분이 사업단 이전을 하게 되어 기존 외부 업체를 통해 시안작업을 진행 하였지만 내부적으로 시안작업 또한 진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영민 : 요즘 보다보면 구청이나 기관에서 에코백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고 은행, 큰 업체와 연계해서 큰 거래처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 조례에 따라 가산점이 주어지는 부분이 있어 공공기관에서는 저희쪽에서 구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보도 많이 되고 해서 초에는 주문이 별로 없었지만 현재는 주문도 많아진 상황이고 12월이면 주문이 평소대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코백 같은 경우 다른 자활센터에는 사업단 운영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 이영민 : 드라이크리닝 사업단, 의류수선사업단과 연계해서 폐 천을 이용하여 파우치 및 에코백 등 다양한 물품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면 어떨까요. 자원순환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의류수선봉제 사업단에서는 파우치 및 물품 제작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우치 제작 등 폐 천을 활용하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접목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신 : 게이트웨이 참여 시 처음 와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각오와 어떤 마인드로 참여를 하는지, 급여만 받기위해서 참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여하시는 분들마다 개인별로 이유가 다 다

를텐데 이에 어떤 개별적 사례관리가 어느 정도 서비스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게이트 웨이 강사님도 7분이기도 하고 한데 기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 분들의 교육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 평가로 교육에 대한 전과 후의 객관적인 평가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위원장 : 운영위원회 자료 9page를 보면 교육 내용이 있고 이 교육을 잡는 이유는 1. 분제, 2. 사회성, 3. 자존감, 4. 대인관계 5. 컴퓨터 활용방법 등 사회에 나갔을 때 그나마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교육시간,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개인별로 집중적 사례관리를 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이런 교육과정을 거치고 자립지원 계획하고 자활계획을 수립하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인테이크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이분들이 사업단 이전을 하게 될 경우 케이스 파일이 사업단 담당자들에게 가게 되고 그 뒤 몇몇 케이스를 선별하여 그 중심으로 사례관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강사 교육의 경우 사전,사후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처음 참여 시 본인이 생각하는 자활의 의욕과 정서적은 부분을 조사하고 3개월 뒤 똑같은 설문지로 조사하여 척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 박상신 : 자활센터에 참여하시는 분들 평균 참여 나이가 40대 후반부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그 나이면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하는 나이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자활에 참여를 하는 것은 개인별로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 적응을 못한다던가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해야 이분들을 자활을 시킬 수 있는지 그 인격을 변화 시켜야 할 것 같은데 그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게 게이트웨이의 교육이라고 보여집니다.
- 이영민 : 9page를 보면 사실은 이미지 메이킹 등 외형적인 교육들로 보여지는데 외형적 교육보다 내면적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교육을 변화 할 수 있는 교육이 더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 현재 9월까지의 교육까지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긍정마인드, 의사소통, 스피치등 외향적인 교육들인 부분이긴 한데 4분기 교육 진행시 다른 교육을 좀 더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신 : 처음에 사업을 시작 했을 때는 이런 교육도 없었기 때문에 발전된 부분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질적으로 양적으로나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교육이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 지금 저희쪽에 의뢰가 되는 대상자들이 저희쪽에서 하는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도 하고 자활도 참여고 여러번 참여를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사업단 이전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 분기에 사업단 이전률을 20%만 이전을 한 부분들이 있었으며 이번 분기는 30%의 사업단 이전률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70~80%가 게이트 웨이의 교육만 받고 종결을 하고 있으며 이에 사업단 이전을 하시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사례관리를 진행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 내년에 우려되는 부분은 참여자의 인건비를 40% 정도 올리는데 160만원 정도 받을 것으로 보여 지며 몇 개의 사업단 경우 성과급이 발생되면 200만원을 넘게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박상신 : 현재 자활센터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2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된다는 말인거죠?
- 위원장 : 네, 저희 기관에서는 최대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지만 내년에는 그 이상의 금액을 받으면서 나갈 수 있도록 업무를 하는 부분은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영민 : 전문강사 섭외 후 강의평가를 진행하고 그 후에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위원장 : 사전, 사후 검사를 진행 하고 교육 커리큘럼 작성 시 나온 문제들을 반영하고 있으며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 강사를 교체 하고 있습니다.
- 이영민 : 커피네 옷장 같은 경우 커피도 팔고 의류 판매도 병행 하네요?
- 간 사 : 사장님이 직접 동대문에 가서서 의류 띄어와서 같이 판매를 진행 하였고 기업으로 출범한지 5년이 넘어 지금은 정리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장 : 그분이 그전에는 관광 상품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쪽으로 인프라 형성이 잘 되어있어 커피와 병행해서 사업을 진행 했었습니다.
- 위원장 : 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특이사항이 없으면 이것으로 3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참석위원 전원과 위원장의 폐회 제의로 폐회를 선언하니 오후 12시 30분이 되다.



■ 3/4분기 회의 결과

안건번호	안 건	결 과
1	2018년 서울강서등촌지역자활센터 3/4분기 사업단별 현황	보고
2	2018년 서울강서등촌지역자활센터 기타 특이사항	보고

상기 회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참석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함

2018년 11월 22일

위원장 : 장 재 승

위 원 : 박 상 산

이 명 호

이 영 민

이 태 호

간 사 : 김 정 민